

바지락

2024년 05-06월호

- 2, 3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정 휴일과 휴일근무수당
- 4, 5면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 이성원 조합원 인터뷰
- 6, 7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적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 8면 QR코드 활용 꿀팁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정 휴일과 휴일근무수당

●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법정 휴일은 ①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대개 일요일)과 ②노동절(5월 1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매주 일요일,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초단시간 노동자(근로계약을 할 때 1주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법정 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유급휴일입니다.

● 노동절에 근무한다면?

사업주는 노동절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무에 동의해 노동절에 일한다면,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도 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에 일하는 대신 기존 근무일을 휴일로 1:1로 대체하는 것(대체 휴일)은 불법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 했다면 ‘보상휴가제’를 통해 1.5배의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절에 연차를 사용해 쉬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는 ‘일해야 할 의무가 있

는 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동자이지만 교묘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약서 작성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인지 여부로 노동자성을 판단하고 있어서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휴일과 달리 법정 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을 관공서 외 일반 회사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처음에 300명 이상 큰 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했다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작은 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여전히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휴일마저 차별받는 건 부당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폐지해야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의 역사를 보면 노동자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요구하고 투쟁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이 투쟁 성과 위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인터뷰 - 이성원 부산케이블분회 조합원]

금속노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에 막연한 두려움이 든다고요? 같은 고충을 겪으며 일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해요.

이번 호에서 이성원 부산케이블분회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부산 지사공단에 있는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는 만으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Q 다니는 회사와 하는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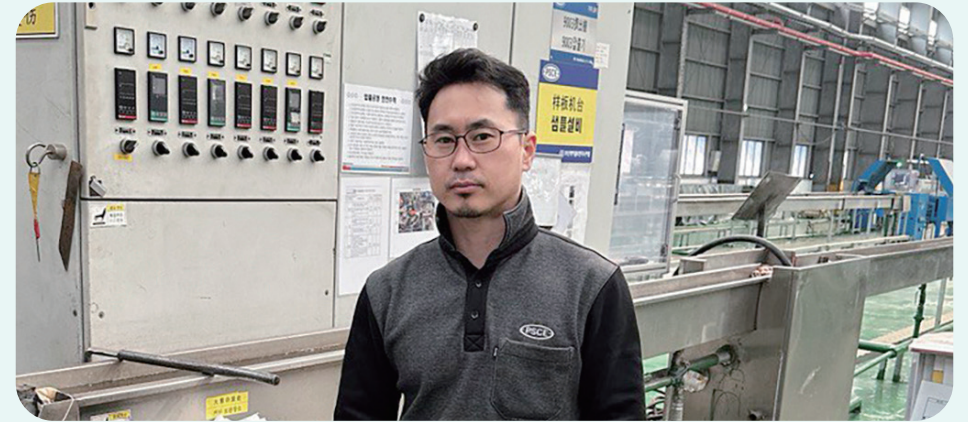
A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은 전선(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선을 생산하는 압출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노동조합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우리 현장에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와 관리자의 갑질, 부당한 처우, 체계 없는 생산 등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회사가 2조 2교대 근무를 3조 2교대로 일방적으로 바꾸며 임금이 줄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할 때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았나요?

A 낯선 경험이어서 익숙해지는 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미디어들이 보여주던 노동조합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노동자 입장에



서 생각해 주는 노조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도 깨게 됐습니다.

Q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노동조합이 없을 때 변하지 않던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현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불만, 불편한 점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현실이 참 좋습니다.

Q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A 부조리, 불평등, 부당한 대우 등 사용자는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도망치고, 회피해야만 할까요. 혼자 힘 들면 함께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임보다는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임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 보세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적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폭 인상해야

장 보러 시장 가기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과일값에 놀라고, 대파값이 조금 안정되나 했더니 양배추 가격이 하루하루 다르게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기름값도 들썩이며 그리잖아도 팍팍한 우리네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작년 3~4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체감경기·임금 실태 전국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2,679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96.4%)이 전년도보다 체감 물가가 상승했으며, 10명 중 8명 이상(83.7%)이 최저임금이 가족 생계비로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고물가로 노동자 서민이 신음하던 작년, 법정 최저임금은 고작 240원 오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을 기록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 순회 투쟁단’을 통해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확인하고 사회 여론화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실제 사업주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례없는 고물가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위반조차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하지 않은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이 강력한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적용 확대가 필요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균불을 때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자, 노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적용 확대입니다. 이주노동자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자,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돌봄노동은 그 필요성에 비해 불안정한 계약 형태와 저임금, 낮은 사회적 인정에 놓여있는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는커녕 저임금 구조를 고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정의를 벗어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학습지 교사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4대 보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직 등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불안정한 사회보장과 저임금은 이들 노동자를 더욱 경쟁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격차 해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폭 인상하는 것과 최저임금제 대상과 권리를 더욱 확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전달합시다.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 '바지락'
QR코드 스캔하고 나의 권리 찾기!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바지락>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동자 권리 찾기 수첩 QR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모음 수첩,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보자!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 힘 있는 노동조합, 든든한 우리 편! 그래, 금속노조!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에는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철강업종 노동자들과 수리 서비스, 콜센터, 판매영업직, 사무·연구직, 식당노동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 경기, 경남, 경주 등 전국 14개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직종, 성별, 국적, 나이와 상관없이 제조업, 관련 분야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업장 단위가 아닌 1명 개별 가입도 가능합니다.
- 제조업 부문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비정규직, 사무직 함께하는 금속노조.
노동자 권리 옹호하고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금속노조에 가입하세요.